



알렉산더 맥퀸
(Lee lexanderMcQueen)

1010335

손혜인

Who is he?



알렉산더 맥퀸 (Lee Alexander McQueen)

.출생-사망

-1969년 3월 17일 (영국) - 2010년 2월 11일

. 학력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 패션디자인 석사

. 수상

-2003년 미국 패션디자이너 협회 (CFDA)

올해의 세계디자이너

-2001년 올해의 베스트 브리티시 디자이너

. 경력

-영국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 패션디자인 석사학위 수여

-웨일스 공 찰스,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 고급양복 디자인 의뢰 및 작업

-팝가수 비요크의 패션 작업, 앨범 아트 작업, 뮤직 비디오 작업

-1996년 패션 브랜드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최연소 "올해의 패션 디자이너 상" 수여

-CBE 훈장 수여

-구찌와의 작업 및 패션감독

-2005년 신발 브랜드 퓨마와의 합작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패션 및 뮤직 비디오 작업

'영국이 낳은 천재 디자이너' , '패션계의 앙팡테리블(무서운 아이)'

1969년 6남매 중 막내로 런던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맥퀸. 그는 16살에 런던의 유서깊은 양복점 '기브스 앤 호크스'의 견습생으로 패션 세계에 입문했다. 그러다 뒤늦게 런던의 명문 '센트럴 세인트마틴 스쿨 오브 아트 앤드 디자인'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당시 '패션계 대모'로 불리던 패션전문기자 이사벨라 블로우는 그의 졸업작품을 모두 사들였고, 그 뒤 그의 후원자로 나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96년 27세의 나이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가 됐으나, 그의 파격적인 작품은 지방시의 고상한 고객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맥퀸은 자신의 창의력을 억눌렀다는 이유로 2001년 지방시와 계약을 끝낸 뒤 구찌와 협업했고, 자신의 부티크를 운영했다.

맥퀸은 예측할 수 없는 광기의 패션쇼로 유명했다. 무대에 비가 내리고, 페인트를 레이저처럼 쏘기도 했다. 이게 내가 맥퀸에게 반한 **제일 큰 이유**였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남들과 매번 남들과 차별화된 쇼로 사람들을 놀라게했던 맥퀸. 맥퀸은 한 인터뷰에서 "옷을 만들 때 변하지 않은 규칙은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쇼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 발전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파리 컬렉션에선 "경제 위기는 내 탓이 아니다"라며 타이어.소파 등 재활용 소품을 이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다. 2006년 선보인 해골 디자인은 그의 독특함이 가장 잘 드러난 수작으로 꼽힌다. 2005년엔 허리선이 가슴 아래까지 훌쩍 올라간 재킷을 만들어 '한국 라인'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

그는 한계를 모르는 디자이너였다. 뉴욕.밀라노 등에 부티크를 운영하며 브랜드를 확장하는 한편, 2005년에는 푸마와 협업해 스니커즈를, 2007년엔 샘소나이트와 함께 럭셔리 가방을 만들어냈다. 2009년엔 위스키 시바스 리갈의 병을 디자인했다.



2010 S/S - 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종말을 표현

